



런던 올림픽 양궁 2관왕 기보배

## 선수들과 함께 웃고 울고 ... 2012 광주·전남 스포츠 10대 뉴스



양학선

### 1 광주선수들 올림픽 금3 은2 동1

빛고를 전사들이 런던 올림픽에서 금3 은2 동1의 성적을 내며 한 국가를 능가하는 눈부신 성적을 남겼다. 광주여대 출신의 기보배가 양궁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 우승까지 차지하며 올림픽 2관왕에 올랐고, '도마의 신' 양학선은 광주체육고에서 갖고 닦은 실력으로 체조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체고 출신 김종현은 50m 소총 3차세, 최은숙은 펜싱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성용은 한국의 첫 축구 동메달의 주역이 됐다.

### 2 KIA 선동열호 출범과 4강 탈락

KIA 타이거즈는 일본 주니치와 삼성을 거쳐 1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감독 체제로 2012시즌을 맞았다. V11 목표로 야심찬 출발을 한 '선동열호'의 첫 시즌 성적은 62승6무65패(승률 0.488) 5위, 가을잔치에서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서재응을 중심으로 시즌 막바지 선발진의 호투 행진과 신인 박지훈·홍성민, 신고 선수 출신 이준호의 활약 등이 2012시즌 팬들의 마음을 달래줬다.



### 3 광주 FC 창단 2년만에 강등

2011년 프로에 첫발을 내딛던 K리그 막내 광주 FC가 뒷심 부족으로 첫 강등팀의 운명을 맞았다. 시즌 초반 돌풍의 주역이었던 광주는 고질적인 수비불안 속에 스플릿 시스템 하위 그룹에서 후반기를 맞았다. 10경기 연속 무승에 빠지며 추락을 거듭한 광주는 성남에 0-3에서 4-3 대역전극을 펼치며 생존을 위한 마지막 불씨를 살렸지만 인천·대전과의 무승부에 이어 43라운드 대구와의 경기에서 패를 기록하며 강등이 확정됐다.

### 4 '바람의 아들' 이종범 은퇴

2012년 5월26일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바람같이 그라운드를 떠났다. 전지훈련과 시범경기를 통해 2012시즌을 준비했던 이종범은 코칭스태프로부터 전력 외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즌 개막 1주일을 앞두고 은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5월 26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은퇴식을 갖고 정든 그라운드와의 작별을 고했다. 이종범을 상징했던 번호 7번은 영구결번됐다.



이종범



신지애



임창용



김영건

### 5 기성용 EPL·임창용 ML 입성

김호고 출신의 기성용이 지난 8월25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와 3년 계약을 맺고 '꿈의 무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다. 2010년 K리그 FC 서울에서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한 기성용은 열 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그로 이름을 올렸다. 진흥고 출신의 투수 임창용도 12월 시카고 컵스와 계약, 미국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됐다. 임창용은 일본야쿠르트 수호신으로 우뚝 서면서 빅리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 6 신지애 브리티시오픈 우승

신지애가 지난 9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재기감을 날렸다. 신지애는 약천후 속에 대회 마지막날 3, 4라운드를 잇따라 치른 강행군을 펼치고 9언더파 279타, 유일하게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내며 2008년 대회 우승 이후 4년 만에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신지애는 부상을 털어내고 LPGA 투어 통산 10승을 채우며 시즌의 부활을 알렸다.

### 7 패럴림픽 광주 선수단 맹활약

런던 패럴림픽에서도 광주선수단의 선전이 눈부셨다. 2004년 아테네 대회 2관왕에 빛나는 탁구 김영건이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했고, 장애인 여자 양궁의 지존 김란숙은 이화속·고희숙 '슈자매'와 함께 금메달을 명중시키며 한국의 첫 여자 양궁 단체전 우승에 함께 했다. 탁구 6명(광주 시정속속 코치1, 선수5)과 양궁 3명(광주장애인양궁협회 소속)등 총 9명의 선수와 코치는 금 2, 은 2, 동 1개를 획득해 한국의 종합 순위 12위(금 9, 은 9, 동 9)를 견인했다.

### 8 F1머신 영암 서킷 달구다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지구촌 최고의 스피드 축제 F1 코리아 그랑프리 가 영암 서킷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독일의 제바스티안 페텔(레드불)은 경기 시작부터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며 페르난도 알보르노(스페인·페라리)를 제치고 드라이버 부문 시즌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 싸이의 축하공연이 더해졌던 이번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3년 연속 누적 관객 16만명 돌파에 성공하며 대중화의 기반을 다졌다.



### 9 광주 8년만에 전국체전 도약

올림픽 스타 양학선·기보배와 육상 국가대표 선수들을 앞세운 광주는 대구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38, 은 37, 동 54의 성적을 내며 종합 14위에 올랐다. 육상 등 육상종목의 득점 향상 속에 제84회 전국체전(2003년) 원정 대회 이후 8년 만에 순위가 상승했다. 전남은 2개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수영의 양정두 등을 앞세워 금 39, 은 49, 동 58(전년도 금 34, 은 42, 동 58)을 획득했지만 충북의 견제에 밀리며 11위에서 1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 10 굵직한 세계대회 성공 개최

6월 월드컵 국제남자배구대회, 8월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11월 2012 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등의 굵직한 국제대회가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2015년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예행연습으로 치러진 세계대학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대회운영과 흥행, 성적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은 18개국 173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금빛 왕크' 이용대를 앞세워 금3, 은1, 동4개의 성적을 기록했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제-  
 [맥주 or 소주 1병] 택1  
 [와인 or 생맥주 1잔] 택1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